

# '금융 영토' 무섭게 넓히는 BNK캐피탈



BNK캐피탈(대표이사 이두호)은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의 자회사로 2010년 7월 설립된 여신전문 금융업체다.

현재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24개 영업점에 6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오토금융, 소매금융, 리스금융, 기업금융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유일한 여신전문 금융사로서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2014년 3월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각각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소액대출 영업을 펼쳐 양호한 영업실적을 거두고 있다.

2015년 4월에는 인근 국가인 라오스에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리스회사를 설립해 그동안 국내 자동차 할부 금융시장에서 다년간 쌓아온 영업 노하우를 해외 금융시장에 접목해 나가고 있다.

## 중고차 전용 금융 플랫폼 'BNK썸카' 출시

BNK캐피탈은 국내 중고차 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

한 금융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중고차 시세 및 매물 정보와 온라인 중고차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중고차 전용 금융 플랫폼인 'BNK썸카'를 오픈했다. BNK썸카는 보증보험을 기반으로 최저 6.9%의 금리와 최대 3천500만원 한도의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제공한다.

대출 신청과 진행은 인터넷과 모바일 웹으로 비대면, 무서류로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대출 신청 고객의 소득을 파악해 대출진행 과정에서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BNK캐피탈의 BNK썸카는 각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격을 동일 연식 차량에 한해 최대 15건까지 보여준다. 희소성이 높은 매물에 대해서는 연식과 상관없이 최근 판매된 이력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중고차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원스톱 유통플랫폼 'BNK오토모아' 오픈

한편 BNK캐피탈은 중고차 구매·판매는 물론 중고차 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통플랫



폼인 'BNK오토모아'를 올해 7월 새롭게 오픈했다. BNK오토모아는 실제 판매 중인 차량정보만 제공한다. 판매가 완료되면 해당 매물이 자동 삭제돼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전국 중고차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BNK중고차 시세를 기본으로 제공해 고객들이 허위매물 걱정 없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주위 매매상사 및 차량을 소개하는 현장서비스 외에 핫걸음 보상, 환불보장, 사전예약 기능도 제공한다. BNK오토모아와 연계된 프리미엄 매매상사를 이용하는 중고차 구매 고객에게는 보증기간을 연장해 준다.

## BNK오토모아 출시 기념 '겨울나기 이벤트'

현재 BNK캐피탈은 BNK오토모아 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겨울나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부산원파크매매단지 내 '보증기간 연장' 차량을 구입하면 1년 2만km까지 200여 개 항목의 보증기간을 늘려준다.

차량 예약 방문, 딜러 평가, 내차 견적 받기 이벤트를 통해 볼스원 8중 세트 경품도 증정한다.

BNK오토모아는 모바일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두 내려받을 수 있다.

PC에서는 www.bnkautomoa.co.kr 주소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BNK캐피탈 관계자는 "고객들의 합리적인 중고차 거래를 돕기 위해 BNK오토모아와 BNK썸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다양한 중고차 관련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